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▪ 문의 : 농업농촌연구부 최윤규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80)

▪ 담당실장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  
(063-280-7161)

보도시점: 2016년 12월 29일(목) 12시부터

## 도민 10명 가운데 8명 건강 보통 이상, 5명 생활체육 규칙적 참여

전북연, '2016 전북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' 정책브리프 발간

- 전북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가 출간됐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28일 '2016 전북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'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.
- 브리프에 따르면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(82.7%)으로 응답했고, 5명은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했다.
- 도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'걷기'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'보디빌딩(헬스클럽)', '축구', '수영' 순이다.
- 도민들은 생활체육 가운데 '수영'을 가장 많이 강습 받았고, 강습을 원하는 종목 역시 '수영'으로 조사됐다.
- 전북연구원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"2015년 현재 도내 수영장은 25개로 전국 607개의 4.1%에 불과하다"며 "도민들의 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"고 밝혔다

- 이번 브리프에서 연구원은 저학력, 저소득, 블루칼라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제안했다.
- 브리프에 따르면 고학력, 고소득, 화이트칼라 계층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반해 저학력, 저소득, 블루 칼라는 상대적으로 생활체육활동이 미진했다.
- 최 부연구위원은 “사회자본이 낮은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- 전북연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도내 14개 시군 2천610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했다.

※ 붙임 : '2016 전북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' 정책브리프